

통역·의전·운전...자원봉사자 3126명 함께 뚝다

광주세계수영대회
GWANGJU 2019.
50일 앞으로

〈3〉 시민 힘으로 성공 이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만큼 이번에도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성공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하계 U대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북한 선수단의 불참, 7월의 장마와 대풍 등 ‘트리플 악재’에도 저비용·친환경·컬처(문화)대회를 치르면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 특히 하계 U대회 성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시민’으로 꼽혔다.

대회 진행에서 손님 맞이 중심에는 늘 시민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지진 피해 등으로 대회 참가가 어려웠던 네팔 등 일부 외국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지원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 빛났던 대회로도 기록됐다. 또한, 한반도 남단, 세계의 변방이었던 광주가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국제 도시’로 널리 알려졌다 점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서포터즈 30~100명 팀 구성

국가별 응원·선수들 쇼핑 안내

택시운전자들 친절운행 결의

이번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협조 속에 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우선 시민들로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의 활약이 기대된다. 대회 기간 중 최일선에서 손님 맞이와 선수 편의를 도울 자원봉사자 3126명이 선발돼 오는 27일 공식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총 9376명이 지원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졌다.

이들은 각 경기장과 선수촌, 공항 등에서 외국어 통역을 비롯한 의전, 시상, 운전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하게 된다.

시민 서포터즈도 모집에도 시민 1만 2000여명이 응모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30명에서 10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해 각 국에서 참석하는 외국 선수단 환영과 환송, 국가별 경기장 응원, 외국인 쇼핑안내 등의 활동을 하며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 서포터즈는 지난 21일 발대식을 갖고 안전·질서·친절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참가국 선수들

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결의했다.

택시운수 종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광주지역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21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친절운행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 손님들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해 광주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공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시민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광주시민들의 경험과 역량이 이번 대회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5년 하계 U대회는 풍성한 축제와 문화공연 등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만큼 이번 대회에도 내외국인 선수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공연 행사 등의 준비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계 5대 스포츠 대회의 하나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 개최는 광주의 세계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면서 “시민 서포터즈단과 자원봉사자들 비롯한 모든 광주시민들이 내외국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질서 있는 안전한 광주를 알리는데 앞장서 대회 성공에 크게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내 친구 노무현...” 부시 전 대통령 추도사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정신 잇겠다” 추모글

오늘 봉하마을서 10주기 추도식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추도식은 유영아 전 노무현 시민학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공식 추도사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문화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업적과 열정을 기릴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 시작 전 문화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함께 관양숙 여사와 환담한다.

추도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견호씨가 대표로 유족 인사말을 하게 된다. 이어 10주기 추도식 특별 영상 상영, 추도사, 추모공연, 이사장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추모공연은 가수 정태춘·박은옥씨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진행한다. 이날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둔 22일 추모 글에서 “대통령께서 혁신으로 일궈낸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광주·전남 상생으로, 영·호남 동서회합으로, 5·18의 전국화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노무현’ 이름 석자를 혁신의 이정표 삼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깨어있는 광주시민과 함께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워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추모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 전라남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통한 심정으로 떠나보낸 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외침은 아직도 우리 가슴 깊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며 “농수산업과 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화·체육, 에너지·자원 등 여러 방면으로 남북 교류에 앞장서고, 더불어 잘사는 전남 행복시대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등록문화재에 등재된 오지호 화백 대표작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8) ‘남향집’

고백하자면, 오랫동안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한 화가 오지호(1905~1982)의 대표작인 ‘남향집’(1939년 작)이 자산동 초가집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지호 화백이 조선대에 서 후학을 양성하면서부터 거주했던 자산동 초가집이 ‘광주시립미술관 남도미술-뿌리’ 전시(6월8일까지)를 계기로 드디어 귀향나들이를 하게 되었다고 내심 흥분한 것이다. 정보는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선정되었을 때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까.



오지호 작 ‘남향집’

‘남향집’은 미술사적, 미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3년 2월 등록문화재로 등재되기도 했다.

예향 광주의 토대이자 뿌리인 오지호 화백의 ‘남향집’이 작품 소장처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되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며 요즘엔 하루에 한 번 씩은 전시실을 찾아가 ‘남향집’을 보고 또 본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